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2019학년도 제5차 회의록

위원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19. 11. 18(월) 16:00 ~ 17:0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중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위원장 및 위원(6명) : 조기석,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유정은, 윤이식
 - 간 사(1명) : 최호준
 - 불 참(1명) : 문승현
4. 회의 안건
 -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타 학교 현안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조기석 위원장 교직원 2인, 학생대표 2인 이상의 출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조기석 위원장 :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고자 함.

서명 :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주요발언>

○ 최호준 간사 : 2019학년도 본예산은 등록금회계 195억, 비등록금회계 82억, 내부거래 2억, 총 합계 276억 규모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은 등록금회계 208억, 비등록금회계 188억, 내부거래 2억, 총 합계 394억으로 본예산 대비 119억 증액하여 편성함.

수입 증가분 119억의 주요 항목으로는 사이버외대 제2교사 매입을 위한 건축기금 및 특정목적기금 인출이 78억, 한국사학진흥재단 장기차입금 44억 등이 있으며, 등록금수입 11억 증가, 전입 및 기부수입 13억 증가,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2억 증가 등이 있음. 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디지털 도서관 건립 관련 건축기금 30억 인출 항목은 추경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

지출 증가분 119억의 주요 항목은 사이버외대 제2교사 취득 관련 토지 매입비 122억, 제2교사 리모델링 비용 4억원 등이 있으며, 교외장학금 9억 증가, 교내장학금 1.2억 증가 등이 있음. 각종 비용에 대한 전수조사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예비비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인 사업 및 예산 부족 사업에 대비하여 반영해놓음.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은 등록금회계의 경우 전기이월자금과 동일한 금액인 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 재정 건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정은 위원 : 등록금회계 건설가계정에서 4억원을 지출하겠다고 되어있음. 어떠한 비용인지 설명을 요청함.

○ 조기석 위원장 : 10월 이사회에서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교지 매입 후 교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이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놨음.

○ 유정은 위원 : 꼭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 조기석 위원장 : 토지는 반드시 비등록금회계에서만 매입해야 하며, 건물 매입은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함.

○ 유정은 위원 : 교지 매입 안건이 최초 논의되었을 때 등록금회계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결국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유감임.

○ 노문이 위원 : 토지 매입 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12월 말경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노문이 위원 : 토지 매입 및 리모델링 관련 총 비용이 얼마인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비등록금회계에서 122억, 등록금회계에서 4억원, 합계 126억임.

○ 노문이 위원 : 등록금회계에서 왜 비용을 사용하는지 설명을 요청함.

○ 조기석 위원장 : 등록금회계에서 건물 매입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회계에 반영한 것임.

○ 노문이 위원 : 빚을 내가면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학생들의 복지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지 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유정은 위원 : 건물 리모델링에 등록금회계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임.

○ 윤이식 위원 : 비등록금회계에서 4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함.

서명 : 김희진 진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 최호준 간사 : 현재 비등록금회계에서는 4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여력이 없으며, 만약 4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기금에서 인출을 하거나 추가로 기채를 더 받아야 함.

○ 윤이식 위원 : 아직 리모델링이나, 8층 건물 신축 등 구체적인 토지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올해 추경이 아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지 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조기석 위원장 : 토지를 구입 후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예측해서 반영한 것이 4억이라는 금액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내년 예산에서 다시 조정이 될 것임.

○ 윤이식 위원 : 리모델링을 하게되면 최소 4~5년은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8층으로 신축하게 될 경우 이번에 사용하는 리모델링 비용 4억은 매몰비용이 됨.

○ 노문이 위원 : 토지의 활용 자체를 떠나서 등록금회계에서 4억원이 지출되는 것은 반대임. 학생들의 복지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회계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 조기석 위원장 :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의 복지는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임. 사이버외대 개교 후 15년 동안의 예산 흐름을 보면 학생들을 위해 쓴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유정은 위원 :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위원장님의 발언에 공감하기 힘들. 그동안 예산을 절감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으나 이는 결국 예산을 아껴서 토지를 사는 결과가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 등록금회계 재원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방 4칸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방 4칸을 사용하자고 120억의 돈과 4억의 리모델링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회계 비용까지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학생 위원들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가 등록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5천명 학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 노문이 위원 : 학생들은 끊임없이 온라인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쓴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

○ 진정란 위원 : 말씀하신 사이버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 TF 구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다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조기석 위원장 : 지금 TF를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음. 올 말까지 계획(안)이 완성되면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유정은 위원 : 그렇다면 리모델링 비용 4억원도 내년 예산으로 넘기길 요청함. 교육부에서 토지 매입 관련 사안이 부결나면 향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교육부에서 부결된다면 사업 자체를 진행 할 수 없음.

○ 윤이식 위원 : 사이버외대가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승인이 날 것이라고 봄.

○ 노문이 위원 : 이러한 상황이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 조기석 위원장 : 학교의 브랜드나 교육환경에 있어 외대와 같이 있어 플러스가

서명 : 최호준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되는 것이 사실임. 학교 앞 토지 매입을 이러한 부분과 함께 고려해주길 바람.

○ 윤이식 위원 :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동의해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며 업무 일정 상 오늘 결정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 있는 위원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실무에서는 본 사업이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됨.

○ 유정은 위원 : 다른 위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함.

○ 진정란 위원 : 내부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냈으며, 집행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음.

○ 유정은 위원 : 등록금회계에서 4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라는 것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주기 바람.

○ 윤이식 위원 : 2월까지 건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꼭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건물 활용방안은 현재 미정이며 그때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진정란 위원 :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비용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 됨.

○ 유정은 위원 : 학생위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리모델링에 등록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음. 앞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 매년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매우 우려됨.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매년 돈이 세이브 되는데, 토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매년 5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도 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음.

○ 윤이식 위원 :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이 부결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최호준 간사 : 관련 일정 확인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함.

○ 조기석 위원장 : 10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하기로 함.

○ 10분간 정회 함.

○ 조기석 위원장 : 정송조 기획팀장이 추가 설명을 위해 배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음.

○ 위원들이 동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배석함.

○ 조기석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사업을 제외한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지 질문함.

○ 정송조 기획팀장 : 조건부 의결은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함. 다만 논란이 되는 사업만 빼고 진행하는 것은 등심위 결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함. 또한 해당 사업은 아직 사학진흥재단에서 기채승인이 난 사안도 아니며, 교육부 승인 또한 남아있음.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부결이 난다면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 다만 승인이 난다는 전제하에 실무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예산에는 반영해두어야 함. 매입 예정 토지에 있는 건물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구획 및 환경정리, 그리고 평탄화 작업등으로 최소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비용이 4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임. 12월경에 사학진흥재단 및 교육부 승인

서명 : 김희전

진정란

노훈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이 난다면 2월까지 비용이 지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다만 올해에 집행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비용이 집행 될 것이고 그렇다면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됨. 다만 그 경우에도 본예산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함.

○ 진정란 위원 : 학생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하는지 궁금해 함.

○ 정송조 기획팀장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의 명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등록금회계든 비등록금회계든 모두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금임.

○ 유정은 위원 :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등록금회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임.

○ 정송조 기획팀장 : 그렇지 않음. 여기계신 위원 분들은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양쪽 다 심의 및 의결을 해주셔야 함. 지금 추경에서 4억원을 빼고 의결을 한다 할지라도 교육부에서 교육용기본자산 매입이 승인된다면 결국 2020년 본예산에서 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

○ 유정은 위원 : 8층 건물로 신축할 경우 추가 필요자금 60억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 : 현재 우리 학교가 가진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기채를 받을 수도 있음. 건물을 어떻게 짓고 활용을 하는가라는 계획에 따라 비용은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윤이식 위원 :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 : 부결된다면 이번 이사회에 상신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이사회에 상신해야 함. 다음 달 이사회에 변경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상신해야 함.

○ 조기석 위원장 : 단순히 토지만을 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함.

○ 정송조 기획팀장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및 사학진흥재단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면 4억원은 그에 수반하는 최소한의 비용임. 쉽게 설명드리자면 담을 허물고 부지를 평탄화시키고 내부환경미화 이후 건물에 사이버외대 명판이라도 달기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 노문이 위원 : 문제는 그 비용을 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함.

○ 정송조 기획팀장 :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함. 다만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우려끝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교육부에서 승인이 난다면 4억원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건물을 신축할지, 몇층으로 신축할지등의 부분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향후 모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윤이식 위원 :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4억원이 드는 것인지.

○ 정송조 기획팀장 : 기존 건물을 사용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어갈

서명 : 김귀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것으로 판단됨. 건축사등 전문가 의견으로는 1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유정은 위원 : 매번 등심위에서 이런 식으로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의문임.

○ 정송조 기획팀장 : 이전 등심위에서는 이번 사안이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등심위와 대평의를 개최했었음. 다만 금번 등심위에서는 추경예산 안건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 윤이식 위원 : 조금 전에 개최되었던 대학평의원회와는 정보가 다른 것이 있어 수정이 필요함. 대학평의원회에서는 4억원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음.

○ 진정란 위원 : 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머니가 두 개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음.

○ 정송조 위원 : 비등록금회계에서 대출을 받아도 결국 상황은 등록금회계에서 해야 하는 상황임.

○ 노문이 위원 : 이 부분이 우려됐던 부분임.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등록금에서 계속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되어버렸음.

○ 윤이식 위원 :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계속 진행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음.

○ 유정은 위원 : 자꾸 의사결정이 우리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탐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려스러움.

○ 정송조 기획팀장이 퇴장함.

○ 조기석 위원장 : 토지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 비용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음.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며 재무적인 측면에 있어 학생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함.

○ 유정은 위원 : 학생들은 공간 부족에 대해 전혀 공감한 적 없음.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 홍보비 등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공간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한적 없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은사님들과 계속 반대의견을 내야하는 이 상황을 야기한 재단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많이 속상함.

○ 진정란 위원 : 이 건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이버외대 구성원 모두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함.

○ 윤이식 위원 : 4억원이 토지 매입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라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함.

2) 기타 학교 현안

○ 없음.

7. 폐회선언

○ 조기석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

서명 :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